

# 다니엘의 책 - 번호 129

예언적 의미의 공개: 공화주의의 뿔과 최후의 움직임

Jeff Pippenger

2024-03-11

우리는 다니엘 11장 40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화주의의 뿔과 연관된 40절의 예언적 선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그 적용을 1989년에 도래한 종말의 때에 근거하고 있다. 그 선은 1989년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나타내며, 교황권이 처음으로 권세를 부여받고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일요일 법령을 시행했던 508년부터 538년까지의 예언적 기간으로 예표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그분의 침례에 이르는 선으로도 예표된다.

우리는 또한 그 흐름들에 다니엘 11장 2절에서 발견되는 예언적 역사의 흐름을 덧붙이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1989년 끝의 때 이후 여섯 번째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이며, 그 구절에 따르면 그가 2016년 선거에서 그레시아(글로벌리즘)의 모든 영역을 "격동시킨다"(깨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루는 삼중 연합을 구성하는 세 세력과 관련된 예언적 특징들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이 연합은 1989년 이래로 함께 세계를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에서 은혜의 시한이 마감되는 때로 이끌고 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화주의 뿔의 정치적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이러한 예언적 특징들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주의와 개신교의 두 뿔은 다니엘 8장에서 메대와 바사의 숫양에 달린 두 뿔로 표상되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강 앞에 두 뿔이 있는 숫양 하나가 서 있었고, 그 두 뿔은 다 높았으나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높았으며, 더 높은 것이 나중에 낮더라. 다니엘 8:3

메대와 바사는 이중 권세였고, 프랑스 혁명기의 프랑스도 그랬으며, 미국도 그렇다. 미국의 두 뿔은 공화주의와 개신교이지만, 그 두 뿔을 가진 땅의 짐승은 처음에는 어린 양 같은 짐승이었다가 끝에는 용처럼 말하는 짐승으로 변한다. 두 뿔에 관한 예언의 두 흐름은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서로 병행하며, 함께 고려하면 둘 다 1798년 끝의 때에 시작한다. 뿔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개신교의 뿔은 1798년의 끝의 때와 예언적으로 연결되고, 공화주의의 뿔은 1989년의 끝의 때와 연결된다.

두 뿔은 그리스도 시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으로 상징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였고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였으며, 서로 공공연한 원수였지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연합했다.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배도한 개신교와 배도한 공화주의의 두 뿔은 그리스도께 신실한 일곱째 날 안식일 준수자들을 대적하여 정교 연합을 형성할 것이지만, 두 뿔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 속을 따라 전개되는 동안 각 뿔은 사두개인의 자유주의와 바리새인의 보수주의로 묘사되는 내부적 논쟁을 안고 있다.

우리는 지금 공화주의의 뿌를 살펴보고 있으며, 민주당이 그 기원을 미국 역사 가장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 유의하자. 민주당은 1828년에 결성되었지만 정치적 기원은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에게서 비롯되었다. 메대와 바사의 두 뿌의 증언에 따르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노예제 찬성 입장에 반대하여 1854년에 창당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니엘서 8장에서 '더 높은' 뿌이었는데, 마지막에 돌아난 뿌이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의 뿌이 지닌 이중적 성격 가운데, 먼저는 민주당이, 마지막에는 공화당이 등장했다. 공화당을 탄생시킨 쟁점은 민주당의 친노예제 입장에 맞선 반노예제 입장이었다. 두 뿌 모두에 공통되는 주제는 정치적 혹은 영적 노예제다. 그래서 1863년이 두 뿌 모두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1863년에 공화주의의 뿌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고, 그 자유에 대한 민주당의 저항은 공식적인 공화당뿐만 아니라 미국 남북전쟁도 초래했다. 1776년에 미국이 목소리를 내어 유럽의 왕들(국정술)과 교황(교권술)의 노예제를 거부했다. 이어 1789년에 헌법이 발효되면서 미국이 다시 목소리를 냈다. 땅의 짐승은 교황적이고 군주적인 유럽의 박해라는 '홍수'를 사실상 삼켜 버렸다.

뱀이 여자를 뒤쫓아 자기 입에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자기 입에서 토해 낸 그 강물을 삼켜 버렸다. 이에 용은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도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러 갔다. 요한계시록 12:15-17.

그런 다음 1798년에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 미국이 탄생할 때, 미국은 다시 말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미국이 말할 것을 기록에 남겼다. 이는 예수께서 항상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땅의 짐승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기를 멈춘다. 1798년에 성경 예언의 왕국으로서 그 시작에 미국이 말한 것은, 미국이 용처럼 말할 때 다시 말하게 될 것을 대표한다.

1798년의 이민법은 Alien and Sedition Acts로 불리며, 179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존 애덤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된 네 가지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들은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aliens(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으며, 그 시기의 이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네 가지 법률은 다음과 같다:

1798년 귀화법: 이 법은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을 5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이 시민이 되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외국인 우호법: 이 법은 평시에 '미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한 자'로 간주되는 모든 비시민을 대통령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데 있어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적국인법: 이 법은 전시에 대통령에게 적대 국가의 모든 남성 시민을 체포하고 구금하며 추방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주로 적국 출신의 잠재적 스파이나 파괴공작원을 겨냥했다.

선동죄법: 이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선동죄법은 미국 정부, 의회, 또는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평판을 실추시킬 의도로 그들을 상대로 한 허위, 추문적, 또는 악의적인

진술을 출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는 정치적 이견과 비판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다.

1798년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미국이 시작될 무렵 제정된 외국인 및 선동죄법의 본질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MAGA 지지자들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 법률은 '처음'의 '말하기'였고, 땅의 짐승이 '마지막'에 용처럼 말할 때에도 법률은 매우 비슷할 것이다. 현재의 역사적 환경이 이러한 법률들이 반복될 논리를 완벽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표지다. 1863년, 땅의 짐승의 '말하기'의 한가운데에는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이 있었다.

노예해방선언은 남북전쟁의 정확한 한가운데를 가리켰고, 그러므로 히브리어 단어 '진리'의 정의는 땅의 짐승의 말의 세 가지 이정표에서 발견된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는 마지막 글자와 같으며, 열세 번째 글자는 반역의 상징이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863년과 그때 지목된 반란이 개신교의 뿔로 대표되는 라오디게아 재림교회에서도 성취되었고, 동시에 공화주의의 뿔이 정치적 반란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개신교의 뿔의 이중적 성격은 빌라델비아 재림운동이 라오디게아 재림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공화주의의 뿔의 이중적 성격은 민주당의 노예제 옹호 입장과 그에 대응하여 탄생한 공화당이라는 반노예제 정당 및 첫 공화당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드러났다.

공화당의 첫 번째 대통령은 "진리"라는 세 단계 예언적 표징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그는 첫 번째 시기의 끝이자 두 번째 시기의 시작이다. 이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개인 사역 3년 반의 끝이었고 동시에 제자들을 통한 그분의 3년 반 사역의 시작이었듯이 마찬가지다. 그분의 개인 사역은 세레로 시작되었고, 그 세레는 상징적으로 그분의 죽음을 나타냈으며, 그 기간은 그분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분의 죽음은 제자들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은 그분의 제자 스테반의 죽음으로 끝났다.

1798년 외국인 및 선동법의 "말함"은 노예해방선언의 "말함"으로 끝나는 한 시기의 시작이었다. 노예해방선언은 미국이 용처럼 "말할" 때 끝나는 두 번째 시기의 시작을 알렸다. 1863년에 "말한" 대통령은 최초의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었으므로, 마지막 대통령도 공화당 소속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로 말미암아 두 가지 운동이 생겨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밀러파 운동에 의해 선포되었는데, 그 운동은 반역하여 1863년에 공식 교회가 되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신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능력 있는 천사이기도 한 셋째 천사의 운동은, 세 천사와 관련된 두 운동 가운데 마지막이다. 1798년에 참된 개신교 뿔의 운동으로 시작된 것은 1863년의 반역 가운데 교회로 전환되었고,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법으로 땅의 짐승의 역사가 결말을 맞을 때 1863년의 반역한 교회는 다시 비공식적 운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운동으로 시작된 것은 운동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개신교의 뿔이 처음과 끝에서 전환될 때, 운동이 교회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다시 운동으로 돌아간다. 첫 번째 전환점인 시작에서는 빌라델비아가 라오디게아로 바뀌었고, 끝의 전환점에서는 라오디게아가 다시 빌라델비아로 바뀐다.

공화당의 뿔의 경우, 전환점은 공화당을 탄생시킨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였다. 개신교의 뿔의 경우, 전환점은 1856년부터 1863년까지였으며, 이는 공화당의 뿔의 전환 역사와 동일했다. 1854년에 창당된 노예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첫 전국 전당대회는 1856년에 열렸다. 개신교의 뿔의 경우 반란의 상징은 교회의 합법적 조직이었다. 공화당의 뿔의 경우 노예제를 지지하는 민주당이 반란의 상징이다.

세 번째 천사는 2001년 9월 11일에 두 번째로 가데스로 돌아왔고, 교회에서 운동으로의 전환이 열 처녀의 비유의 예언적 구조 속에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실망은 2020년 7월 18일, 열 처녀의 비유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 속에서 일어났으며, 같은 해 1989년의 끝의 때 이후 여섯 번째 대통령, 곧 "그레시아"의 영역을 "휘저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고, 이는 첫 번째 공화당 대통령이 문자 그대로의 치명상을 받았던 것과 같았다.

늦은비의 한정된 부어짐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고, 곧 임할 일요법령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때에는 늦은비가 한량없이 부어질 것이다. 늦은비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며, 화이트 자매는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오는 때에 사탄적 능력이 아래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거듭 지적한다.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세 가지 사탄의 세력이 있다. 이슬람은 2001년 9월 11일에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이는 9장의 첫째 화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와 일치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으며,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가 무저갱을 열자 무저갱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땅의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 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였다.  
요한계시록 9:1-4.

첫째 화로 예표된 바와 같이, 2001년 9월 11일에 셋째 화의 이슬람이 도래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해할 수 없었고, 이로써 십사만 사천 명을 인치는 일이 시작되었음이 드러났다. 인침의 종결은 머지않아 미국에서 제정될 일요일 법령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치명적 상처를 입고 한동안 잊혔던 바다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일곱에 속한 여덟째 왕국이 된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볼 때 놀랄 것이다.  
요한계시록 17:8.

십사만 사천의 인침에 대한 예언적 기간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권세로 시작되었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권세로 끝날 것이다. 그 역사 한가운데에서 무신론의 짐승, 'woke' 용의 권세도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알파와 오메가께서 이 역사 위에 그분의 서명을 남기셨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그 큰 성의 거리에 놓일 것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에 속한 자들이 삼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보고,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낼 것이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서니,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요한계시록 11:7-11.

2020년에 공화당의 뿔과 참된 개신교의 뿔이 살해되었다. 하나는 무신론의 정치적 용의 권세에 의해, 다른 하나는 무신론의 영적 용의 권세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이어서 사흘 반으로 표상되는 기간 동안 죽어 있었고, 그 뒤 그들이 발로 일어서자 용의 권세로 표상되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힘의 재부상에 대해 진보 성향의 민주당원들이 현재 표출하는 두려움은 예언의 성취이다. Future for America의 사역을 따라온 이들이 표출하는 '두려움'은 다른 유형의 두려움을 나타낸다.

퓨처 포 아메리카의 기별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모두 14만 4천 가운데 들라고 부름받았던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이다. 그러나 독사와 간음하는 자들의 세대인 넷째 세대에 살고 있는, 확증된 라오디게아인들인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그들이 붙들어야 할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명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때가 바로 큰 지진의 때이며, 그 지진은 14만 4천의 두 증인이 기치로 들어 올려질 때, 곧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려지는 바로 그때 일어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다. 또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곧 우리 주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큰 성의 거리에 누울 것이다.' [요한계시록 11:7, 8]"

"이러한 사건들은 증인들이 굶은 벼룩을 입고 증언하던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 교황권을 통로로 하여 사탄은 오랫동안 교회와 국가를 지배하는 권세들을 장악해 왔다. 그 두려운 결과는 특히 종교개혁의 빛을 거절한 나라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덕적 타락과 부패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소돔이 멸망 직전에 있던 상태와 모세 시대 이집트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와 영적 흑암과 유사하였다." 예언의 영, 4권, 190.